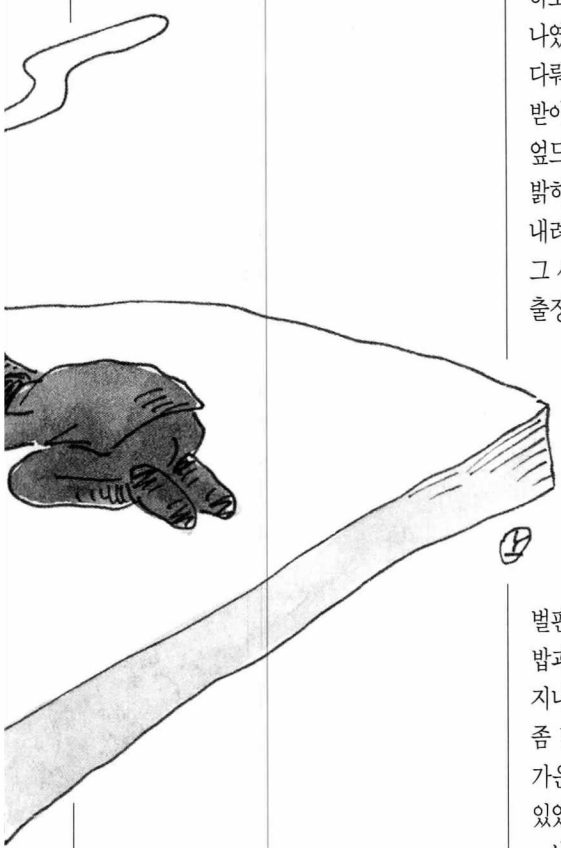


어느 여름날의 출장기

이승우
소설가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거지들이 10수년째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나였다. 그 마을을 이번 호 기사로 한 번 다뤄보겠다는 나의 의견을 편집장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그곳이 내 고향 마을에서 앞드리면 코담을 데에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번 설날 고향에 내려갔을 때도 그 마을에 들른 바 있었지만 그 사실 역시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출장지까지의 거리와 약조건의 숙박

시설들을 과장해가며 출장비를 잔뜩 얻어냈다.

나에게 그 마을은 아주 익숙했다. 내가 한 시간씩 걸어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 어디서 물려왔는지 한 때의 거지들이 그 마을로 물려왔었다. 그들은

별판에 움막 같은 걸 짓고 이웃 마을로 밥과 돈을 얻으러 다녔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밥을 좀 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도시락을 빼앗긴 이도 있었다.

사진 몇 장 찍고 한두 사람 정도의 인터뷰를 따서 그 마을이 생성된 내력과 현재의 정황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만들면 충분하리라는 그림이 순식간에 그려졌다. 그림이 그려지면 일단 일에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시적이 반이라고 했던가. 일을 반쯤 끝내놓은 셈이니 기분이 좋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초조해 하던 카메라맨 김도 내 설명을 듣고나서는 마음이 놓이는지 별컹별컹 술을 잘도 받아 마셨다. 우리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당연히 둘다 만취했다. 날이 밝아올 쯤에야 근처의 여관에 들어갔는데, 잠에서 깨어난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우리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출장길에 올랐다. 원고야 그러저럭 쓴다고 하지만 사진을 담으려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갈 수 없었다. 털 잔 잠을 고속버스 안에서 보충하고 밥은 휴게소에서 대충 해결했다. 다행히 여름이라 해가 지기 전에 고향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김을 데리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부터 들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나?”

부모님들은 뜻밖의 아들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오늘은 일 때문에 왔어요.”

“여기에? 무슨 일로 왔대냐?”

“있잖아요. 이웃 거지마을이요...”

나는 용건을 꺼냈다. 이번 호 우리 잡지에 거지마을을 취재해서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그 손짓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없었다.

“안돼요? 내가 기사를 쓸 거예요. 나쁘게 안 쓸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사람들, 외부랑은 통 왕래가 없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뽀뽀이 흠어진 것 같더라.”

“갑소사!”

낭패였다. 나도 나지만 김이 더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게 어제 일찍 오자고 했지요?”

김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 왔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대?”

태연한 척 그렇게 반문하긴 했지만, 속이 몹시 쓰라린 건 사실이었다. 출장비를 다 날리며 술을 마셔댄 마당에 빈 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노릇이었다. 안경알 너머로 작은 눈을 더욱 작게 해서 노려볼 편집장을 떠올리자 저절로 얼굴이 쩡그러졌다.

“어떻게 하지요?”

김이 물었다.

“그러게. 어떻게 하지?”

내가 되물었다. 김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궁금한 사람은 지난 호 우리 잡지를 뒤적거려 볼 일이다. 그 달치 우리 잡지에는 거지마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물론 원고를 쓴 사람은 나이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김이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 실망하겠지만, 김이 찍은 사진 속의 ‘거지마을의 거지들’은 실은 거지들이 아니다. 아들이고 동생이고 친구인 나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난생 처음 분장이란 걸 하고 거지 연기를 해 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과 내 친구들이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잡지의 독자들에게는 앞드려서 용서를 빌 뿐이다. ❖

태연한 척 그렇게 반문하긴 했지만, 속이 몹시 쓰라린 건 사실이었다. 출장비를 다 날리며 술을 마셔댄 마당에 빈 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노릇이었다. 안경알 너머로 작은 눈을 더욱 작게 해서 노려볼 편집장을 떠올리자 저절로 얼굴이 쩡그러졌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가 내가 쓸 기사의 내용을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허허 하고 웃었다.

“늦었다. 거지들 다 떠났다.”

“뭐라고요?”

“다 떠났단 말이다. 그 마을 텅 비었다.”

“지난 설날도 있었는데, 언제요?”

“한 서너달 된 거 같다.”

“어디로 갔어요?”